

MVP 김도영, 이번엔 '황금 장갑' 정조준



2024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른 KIA 선수단. 왼쪽부터 투수부문 양현종, 네일, 전상현, 정해영, 2루수 부문 김선빈, 3루수 부문 김도영, 유격수 부문 박찬호, 외야수 부문 소크라테스, 최원준, 지명타자 부문 최형우

〈KIA 타이거즈 제공〉

KBO, 2024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 81명 확정

‘V12’ KIA 양현종·김선빈·박찬호·소크라테스 등 10명 후보에 3루수 부문 김도영 생애 첫 수상 주목…다음달 13일 수상자 공개



2024 프로야구에서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가리는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

가 최종 확정됐다.

올 시즌 유일하게 다관왕에 오르며,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된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은 이번엔 ‘황금 장갑’을 노린다. 또,

KIA 타이거즈는 10개 구단 중 LG 트윈스와 함께 가장 많은 골든글러브 후보를 배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1명이며 KBO 리그에서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 이하,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 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50%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단, 타이틀홀더에 한해 여러 포지션 출전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투수 부문 28명, 포수 부문 7명, 1루수 부문 5명, 2루수 부문 6명, 3루수 부문 8명, 유격수 부문 7명, 외야수 부문 19명, 지명타자 부문 3명 등 총 81명이 후보로 선정됐다.

모든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한 구단은 없으며 2024 시즌 통합 우승팀 KIA와 3위를 차지한 LG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랐다.

KIA는 투수 부문에서 양현종과 네일, 전상현, 정해영 등 4명이 후보로 올랐고,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소크라테스와 최원준, 지명타자 부문 최형우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4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최고 타자상과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최우수 수상을 이미 수상한 김도영이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트로피마저 들어 올릴지가 최고의 관심사다.

한편,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12월2일 오후 3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인단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4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다음달 13일 개최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주홍철 기자

네일, 2025시즌도 KIA와 동행

총액 180만 달러 재계약…“내년에도 목표는 우승”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내년 시즌에도 팀 마운드를 책임진다. 올 시즌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네일은 V13 도전을 향한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을 전망이다.

KIA 구단은 27일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40만, 연봉 120만, 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초 입단 당시 총액 95만 달러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른 몸값이다. 그만큼 네일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올 시즌 그의 뛰어난 활약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팀 마운드의 ‘에이스’로 자리잡은 네일은 올 시즌 26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49.1이닝 12승 5패 138탈삼진, 리그 1위의 평균자책점(2.53)을 기록하며 KBO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그의 주무기인 스피워는 KBO 리그를 지배하며, 네일을 정규시즌 MVP 후보로까지 올려놓았다.

네일은 지난 8월24일 타구로 턱을 강타당해 턱 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복구가 불투명해 보였으나 9월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서 열린 홈경기에 깜짝 시구자로 나서며 복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한국시리즈 복귀를 목표로 재활에 매진해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그는 2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102이닝 동안 1승 13탈삼진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이 됐다.

네일은 2024시즌 종료 후 MLB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IA는 네일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다. 결국, 네일과 재계약에 성공하며 팀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KIA에게 필수적이었다. 시즌 종료 후 팀의 핵심 불펜투수 장현식이 FA계약을 통해 LG 트윈스로 이적하며 마운드 공백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네일의 잔류는 팀 전력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였다.

KIA로선 통합 2연패를 위한 핵심 전력인 네일을 붙잡는 데 성공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계약 소식과 함께 네일은 팬들과 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네일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긴



KIA 타이거즈와 재계약하는 제임스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시간 재화를 하는 동안 구단의 지원과 나에게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마운드에 올라 투구할 수 있었다”며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KIA 타이거즈와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좋은 제안을 준 구단에 감사하고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내년에도 동료들과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주홍철 기자

KIA 김도영 ‘월간 10홈런-10도루’·‘사이클링 히트’ 기념모자&기념구 출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의 대기록을 기념하는 특별한 상품이 출시된다.

김도영은 지난 4월 KBO 최초로 10홈런-10도루를 달성한 데 이어 7월에는 역대 31번째 사이클링히트 대기록을 수립하며 KBO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KIA 구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두 가지 한정판 상품을 선보인다.

첫 번째는 ‘KBO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기념모자&기념구 SET’로 팬들에게 김도영의 기념비적인 기록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세트는 28일 오후 2시부터 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단독 출시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KBO 역대 31번째 사이클링 히트 기념모자&기념구 SET’ 판매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상품은 각각 제한된 수량으로 준비됐으며 품절 시 추가 제작 없이 판매가 종료된다.

/주홍철 기자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27일 열린 2024-25 UCL 리그 PSG와의 5차전에서 전반 38분 헤더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뮌헨 김민재, UCL 데뷔골 ‘터졌다’

이강인과 ‘코리안 дер비’ PSG戰 헤더 결승골…승리 견인

한국 축구 대표팀 센터백 김민재가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데뷔골을 쏘았다.

김민재는 27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5차전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8분 세트피스 헤더 선제골을 뽑아내며

뮌헨의 1-0 승리에 앞장섰다. 왼쪽에서 골라인에 바짝 붙어 올라온 코너킥을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편칭해내지 못하자 문전에서 김민재가 머리로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김민재의 UCL 무대 데뷔골이다. 리그에서만 1골을 기록 중이던 김민재의 올 시즌 2호 골이기도 하다. 후반 20분 교체 멤버로 투입된 PSG

이강인은 간간이 날카로운 왼발 킥으로 뮌헨을 긴장케 했으나 수세의 흐름을 바꾸진 못했다.

김민재와 이강인 모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국 선수가 UCL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 건 2011-2012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의 박지성과 FC 바젤(스위스) 박주호 이후 13년 만이다.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매화장사 김은별, 국화장사 엄하진, 무궁화장사 이다현

〈대한씨름협회 제공〉

구례군청 엄하진, 국화장사

천하장사씨름대회

이다현(거제시청)이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무궁화장사(80kg 이하)에 등극하며 올해 4대 민속대회(설날, 단오, 추석, 천하장사)를 씩씩이했다.

이다현은 지난 26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위더스제약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무궁화급 장사결정전(3전2승제)에서 김다영(괴산군청)을

2-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매화급(60kg 이하)에서는 김은별(안산시청)이 선재립(구례군청)을 2-1로 제압하며 생애 첫 매화장사에 올랐다.

국화급(70kg 이하)에서는 엄하진(구례군청)이 정수영(안산시청)을 2-0으로 꺾고 통산 15번째(국화장사 13회, 여자천하장사 2회)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